

"Inbai Kim: Move in Earnest" *Design Technology Art*, (2008)

Inbai Kim: Move in Earnest

진심으로 이동하라

주목 받는 유망 작가 김인배의 두 번째 개인전이 아라리오 서울에서 열렸다. 1978 년 생인 이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기초적인 드로잉 재료라 할 수 있는 연필과 종이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었다. 이번에 선보인 작품들은 자신이 직접 그린 수많은 드로잉 중 몇 점을 선별하여, 이를 조각으로 변신시킨 것이다. 완성된 조각 역시 (드로잉처럼) 흑백의 작품으로, 작가 자신이 제작한 흰색의 입체 형상 위에 검정 연필로 부분들을 채워나갔다. 작가가 표현한 이 이미지들은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생물체들이다. 그리고 이 생물체들은 중요한 신체 부위가 과감히 생략되어 있거나, 정반대로 사소해 보이는 부분들이 강조되어 있다.

김인배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핵심은 사물이나 의미의 절대적 객관성보다는 상대성에 가치를 두는 현대 사회의 시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.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 단계로 하나의 가설을 세운다. 그것은 절대적 진리가 아닌 글자 그대로 단지 하나의 가설일 뿐이지만, 그들은 우선 그 가설을 진리라 여긴 후 거기에 의거해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간다. 그러다가 어떤 특정 조건에서 자신이 세운 가설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, 이전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가설을 내놓는 것이다. 김인배의 접근법 역시 이와 유사하다. 그의 작품은 진리에 기초하기보다는 2 차원과 3 차원의 경계 어디쯤에 서 있다 하겠다.

'사랑해(I Love You)'는 로봇 같이 생긴 우뚝 솟은 흰색 우주인 입상이 흡사 그리움의 시선으로 냉장고를 응시하고 있다. 이 우주인의 얼굴에는 왜곡된 이미지의 냉장고가 비춰지고 있는데, 이는 사랑이 우리의 지각 작용에 변화와 왜곡을 일으킨다는 의미를 묵묵히 전달하고 있는 듯하다. '사랑해'가 전하는 우주인의 사랑에 대해 곱씹어보며, 또 다른 작품 '델러 혼 데이니(Deller Hon Dainy)'를 들여다보는 일 역시 흥미로울 것이다. 거대한 세 개의 두상이 한 쌍을 이루는 이 작품은, 눈을 감고 누군가의 얼굴을 애써 기억해내고자 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. 이 세 조형물 가운데에는 일그러진 표정의 작은 얼굴 하나가 마치 (눈, 코, 입 아무 것도 없이) 텅 비어있는 얼굴 표면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다. 전시장에는 얇은 돌을새김으로 표현된 흑백의 시계 두 점도 자리하고 있다. '혼자서도 잘 할까? (Will You Do Well Alone?)'라는 제목의 작품에서 시계추는 한정된 공간 안을 움직이며 두 개의 분리된 차원, 즉

시계추가 닿는 공간과 닿지 않는 공간 사이를 진동한다. 차원 간의 경계를 정의하고자 시도하는 작가 김인배는 우리에게 그 경계에 머무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, 이러한 사이(in-between) 공간에서 움직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.



전시회장 내부

image courtesy designboom.com



'델러 혼 데이니', 2007

image courtesy designboom.com



'델러 혼 데이니', 2007

image courtesy designboom.com



'델러 혼 데이니', 2007

image courtesy designboom.com



'텔러 혼 데이니', 2007

image courtesy designboom.com



'텔러 혼 데이니', 작품의 세부, 2007

image courtesy designboom.com



'사랑해', 2007

image courtesy designboom.com



'사랑해', 부분, 2007

image courtesy designboom.com



New York 533 West 25th Street, New York, NY 10001 TEL 212.242.6343 / 212.242.6484
Seoul 270 Yonji-Dong, Jongno-Gu, SEOUL KOREA TEL 82.2.708.5050
www.doosangallery.com





'혼자서도 잘 할까?' 2007

image courtesy designboom.com